

주사랑교회 소식

1. 환영 및 여는 찬양

주사랑교회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님 안에서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고 영혼육의 건강한 복도 많이 받으세요. 매 주일 낮 10시 45분부터 찬양과 경배로 예배를 시작합니다.

2. 순교자 기념주일

오늘 주일(9.22) 오전 11시 예배는 <순교자 기념주일로>로 지킵니다.

3. 탑동교회 (경기서지방회 수원감찰 임근택 목사님 시무)

오늘 주일(9.22) 오후 4시 탑동교회 임직예식이 있습니다.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서둔로239번길 18, 101호,102호 민석빌라)

4. 아하브 코업 홈스쿨 성경통독 특강

일시 : 2024년 9월 24일(화) 오전 11시
장소 : 주사랑교회 본당
강사 : 박종욱 목사님(현 파올라교회 담임 / 쉐마성경통독연구원 대표)

5. 구역예배 (한국순교자 기념관 방문)

일시 : 2024년 9월 26일(목) 오전 9시 교회에서 출발
장소 : 한국순교자기념관(경기도 용인시 양지면 추계로 235)
소래교회-북원 (용인 충신대학교 양지캠퍼스)

6. 청소년 예배

매주 토요일 오후 4~5시 청소년 예배를 교육관에서 드립니다.

7. 2024년 9월의 생일을 축하드립니다. (음력 7.29 ~ 8.28)

9.05(목) 장태현 9.13(금) 한태민 9.20(금) 김라라 9.21(토) 오지현

행사계획

날짜	행사내용
09/22	순교자 기념주일 임직예식 (탑동교회, 오후 4시)
09/24	아하브 코업 홈스쿨 성경통독 특강 / 미술활동
09/26	한국순교자기념관 / 소래교회
09/29	선교 헌산예배
10/01	찾달맞이 일석예배 (성전예식)
10/06	태산자 작정 주일(1) 한글과 교회와 선교
10/13	태산자 작정 주일(2)
10/20	태산자 작정 주일(3)
10/27	종교개혁주일 추수감사절 성전 장식 시작
11/01	다.월 21일 기도회 (11/1-21일)

주일 사랑 운영

요일	운행안내
주일	교회출발(9:45) ▶ 탑동(10:00) ▶ 화서동(10:10) ▶ 세류동(10:20) ▶ 교회(10:30)
귀가	교회출발(13:30) ▶ 탑동(13:40) ▶ 화서동(13:50) ▶ 동탄(14:20) ▶ 화성군 송산면 용포리(15:00)
평일	담임목사 연락(010-4724-3562)

예배안내

구분	분시	간
주일오전예배 1부	오전 11:00	
주일오후예배 2부	낮 1:00	
주일어린이예배	낮 1:00	
토요학생부예배	오후 5:00	
주일청년부예배	낮 1:00	
수요저녁기도회	저녁 7:30	
금요성령기도회	저녁 7:30	
새벽기도회(월~토)	새벽 5:30	
화요중보기도회	낮 2:00	
목요구역예배	낮 2:00	
Who made the world?	(상담 후 진행)	
Thinkwise(마인드맵)	(상담 후 진행)	
쉐마학당	(상담 후 진행)	

찾아오시는 길 / 매교역 2번 출구방향 50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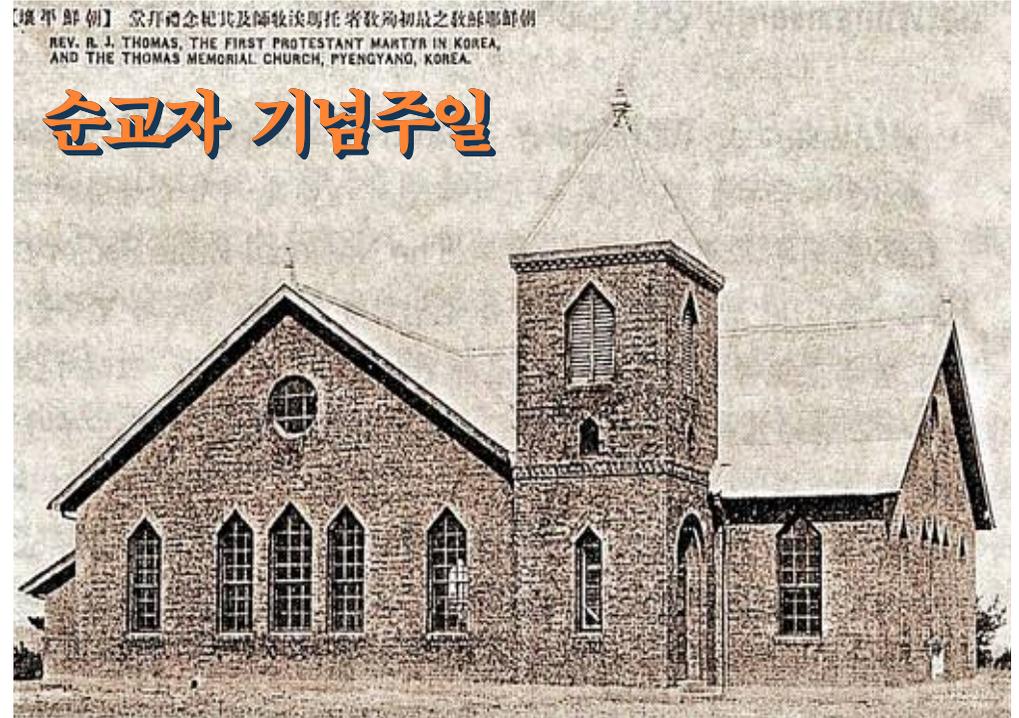
주일대표기도



- 09/22 박제연 집사
- 09/29 이광근 안집사
- 10/06 임명자 집사
- 10/13 임명숙 집사
- 10/20 김혜숙 권사
- 10/27 정애자 권사
- 11/06 박제연 집사



주사랑 7권 38호 | 2024년 9월 22일
창립 2017.11.25 | 성령강림 후 열여덟 번째 주일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주사랑교회
Jusearang Korea Evangelical Holiness Church



주사랑교회 사명선언

- 오직 예수만을 구주로 고백하는 신앙공동체로써
- 말씀과 기도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 성령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와 가정을 세워가고
- 실력과 영성을 겸비한 다음 세대를 리더로 세우며
- 불신자들에게 생명의 구원의 복음을 전파하며
- 민족복음화와 통일선교에 이바지하며
- 열방과 세계에 복음으로 선교하는 교회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Welcome to Jesus Love Church

주사랑교회를 찾아주시는 형제, 자매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교회 등록을 원하시는 분은 담임목사의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주일오전에배

오전 11시 00분 (순교자 기념주일) 인도: 집례자

※ 목도 신명기 28:1~6 인도자

※ 찬송가 찬 27장 다같이
(빛나고 높은 보좌와)

※ 사도신경 다같이

※ 주기도문 찬 635장 다같이

성서교독 No.85. 요한일서 4장 인도자/회중

찬송가 찬 280장 다같이
(천부여 의지 없어서)

대표기도 박제연 집사
(어린이 교육부장)

성경봉독 요한복음 12:23-33 (신 168) 박제연 집사

광고 인도자

말씀인도 생명 씨앗을 심는 사람들 한승훈 목사

봉헌찬송 찬 288장 다같이
(헌금위원 : 한태민 어린이)

※ 축도 한승훈 목사
(※ 표시는 경건한 마음으로 일어섭니다)

양기로운 예물 (언금은 들어오시면서 미리 언급함에 넣어주세요)

십일조 : 이옥성 장사라 한태민 한희락 / 아가을

주정헌금 : 김혜숙 문재호 박제연 오동영 임명숙 이광근 임명순 임명자 한승훈 / 아가을

교회학교 : 이재아 이재희 이재우 한성결 한은총 한태민 한희락

감사헌금 : 고예순 김막동 이옥성 이광근 박제연 임명숙 오동영 임명순 정창재 한승훈 / 무명(1)

구역헌금 : 김혜숙 박제연 임명순

선교헌금 : 임명자 한태민

농협 (주사랑교회) 351-1002-2982-63

통일선교 비전기도의

오후 1:00 경배와 찬양 야비찬양단
대표기도 말은 이
성경봉독 열왕기하 2:1-14 (구 561)
말씀제목 갑절의 영감을 주소서
말씀인도 한승훈 목사

수요저녁기도의

오후 7:30 경배와 찬양 야비찬양단
성경봉독 약 3:13-4:10 (신 374)
말씀제목 위로부터 난 자해를 따라 살자

목요구역기도의

오후 2:00 추석가족예배 가정별 찬양
성경봉독 합박국 3:16-19 (구 1035)
대표기도 말은 이
말씀제목 서로 감싸주며 감사하는 추석

금요저녁기도의

오후 7:30 경배와 찬양 야비찬양단
성경봉독 열왕기하 4:38-44 (구 567)
말씀제목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주소서

새벽기도의

새벽 5:30 매일성경 (월~금)
22일일 왕하 2:1-14 끝까지 충성된 종으로 살자
23일일 왕하 2:15-25 잠의 이름으로 나가자
24일화 왕하 3:1-12 잠의 동행 알찬편
25일수 왕하 3:13-27 여섯은 양의 사할자도
26일목 왕하 4:1-17 자기 백성을 살리는 하님
27일금 왕하 4:18-37 믿음으로 누리는 생령
28일토 왕하 4:38-44 공과가 되려는 하님
29일일 왕하 5:1-14 하님의 은혜를 알기 위하여
(단, 주일은 개인별 자율 묵상)

국내선교(선한총성교회)

정승정 목사(예배)
선한총성교회
성품연구소 대표
태교연구소 대표

국내선교(오주교후흥스쿨)

이재은 대표(예배)
홀스쿨링
성경적 가정
복음적 다음세대

해외선교(모로코)

모로코
컴퍼션 파송
소리 단이

해외선교(타지키스탄)

이진은 선교사
안민주 선교사
타지키스탄
안타를 파송
평신도선교사

북한선교(북한선교위원회)

기성 총회 향훈
북한선교정책수립
북한선교교회개건
북한이탈주민 정착
통일선교학교

⑦ 요아스가 죽고 이스라엘의 제 9대 왕으로 등극한 인물은?(대하 25:1~2)

()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이십오 세라 예루살렘에서 이십구 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호와단이요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기는 하였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⑧ 아마사 왕이 에돔의 전투에서 큰 공을 세웠지만 하나님께 범죄하여 심판 받게되는 결정적인 이유는 무엇인가요? (대하 25:14~15)

아마사가 에돔 사람들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들을 가져와서 자기의 신으로 세우고 그것들 앞에 경배하며 분향한지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마사에게 진노하시니 한 선지자를 그에게 보내시니 그가 이르되 저 백성의 신들이 그들의 백성을 왕의 손에서 능히 구원하지 못하였거늘 왕은 어찌하여 그 신들에게 구하나이까 하며

⑨ 아마사의 아들로 이스라엘 제 10대 왕으로 16세에 왕에 등극한 인물은(대하 26:1)

유다 온 백성이 나이가 십육 세 된 ()를 세워 그의 아버지 아마사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으니

⑩ 웃시아의 초반 통치는 어떻게 평가하고 있나요?(대하 26:4~5)

웃시아가 그의 아버지 아마사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하게 행하며 하나님의 목시를 밝히 아는 ()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하게 하셨더라

⑪ 웃시아의 후반 통치는 어떻게 변질되었다고 평가하고 있나요?(대하 26:16)

그가 강성하여지매 그의 마음이 ()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하려 한지라

⑫ 웃시아가 오직 제사장만 분향할 수 있는 법을 어기고 하나님께 범죄하여 받은 형벌은? (대하 26:21)

웃시아 왕이 죽는 날까지 ()가 되었고 ()가 되매 여호와와의 전에서 끊어져 ()에 살았으므로 그의 아들 요담이 왕궁을 관리하며 백성을 다스렸더라

⑬ 웃시아의 아들 요담이 왕이 올랐을 때에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황은?(대하 27:2)

요담이 그의 아버지 웃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하게 행하였으나 여호와와의 성전에는 들어가지 아니하였고 백성은 여전히 ()하였더라

(답안을 작성한 주보의 앞면에 이름을 기록하시고 헌금함에 넣어주시면, 봉헌시간에 축복기도와 1년 치를 모아 제본해 드립니다)

- ① 남 유다의 왕 아하시야가 예후에 의해 죽게 되자, 그의 어머니 아달라가 남 유다의 모든 왕자를 죽이는 대학살이 벌어졌는데 유일하게 살아남은 사람은?(대하 22:11-12)
왕의 딸 여호사브앗이 아하시야의 아들 ()를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중에서 몰래 빼내어 그와 그의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라를 피하게 하였으므로 아달라가 그를 죽이지 못하였더라 여호사브앗은 여호람 왕의 딸이요 아하시야의 누이요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내이더라 ()가 그들과 함께 ()에 육 년을 숨어 있는 동안에 아달라가 나라를 다스렸더라
- ② 아달라의 섭정을 끝내고 요아스가 등극할 수 있도록 앞장선 제사장은?(대하 23:1)
제칠년에 ()가 용기를 내어 백부장 곧 여로함의 아들 아사랴와 여호하난의 아들 이스마엘과 오벳의 아들 아사랴와 아다야의 아들 마아세야와 시그리의 아들 열리사밧 등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매
- ③ 제사장 여호야다가 요아스의 제위 후 가장 먼저 시작한 개혁은?(대하 23:16-17)
여호야다가 자기와 모든 백성과 왕 사이에 언약을 세워 ()
한지라 온 국민이 바알의 신당으로 가서 그 신당을 부수고 그의 제단들과 형상들을 깨뜨리고 그 제단 앞에서 바알의 제사장 ()을 죽이니라
- ④ 아달라의 아들들이 파괴한 성전 복구를 위해 요아스가 제시했던 방법은? (대하 24:8-10)
왕이 말하여 한 ()를 만들어 여호와와 전 문 밖에 두게 하고 유다와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하나님의 종 모세가 광야에서 이스라엘에게 정한 ()를 여호와께 드리라 하였더니 모든 방백들과 백성들이 () 마치고까지 돈을 가져다가 궤에 던지니라
- ⑤ 복구된 성전에서 여호사밧이 사는 동안 꼭 지켰던 것은?(대하 24:14)
공사를 마친 후에 그 남은 돈을 왕과 여호야다 앞으로 가져왔으므로 그것으로 여호와와 전에 쓸 그릇을 만들었으니 곧 섬겨 제사 드리는 그릇이며 또 숟가락과 금은 그릇들이라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여호와와 전에 ()를 드렸더라
- ⑥ 제사장 여호야다가 늙어서 죽게 되자 요아스 왕이 변심하여 우상을 섬기게 되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 왕에게 경고하였던 선지자는 누구인가요?(대하 24:20-21)
이에 하나님의 영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를 감동시키시매 그가 백성 앞에 높이 서서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와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행동하지 못하게 하느냐 하셨나니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하나 무리가 함께 피하고 왕의 명령을 따라 그를 여호와와 전에 ()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시 119:9)

인간을 이루고 있는 성분들을 조합하면 다음과 같다고 합니다.

- 비누 7장 정도의 만들 수 있는 지방
- 중간 정도 크기의 못을 만들 수 있는 철분
- 찻잔 7잔을 채울만한 당분
- 달장 하나 정도를 칠할 수 있는 석회 가루
- 성냥 2,200개피를 만들 수 있을 정도의 인
- 약간의 소금과 마그네슘
- 장난감 크레인 하나를 폭발시킬 수 있을 만큼의 칼륨
- 강아지 한 마리 속에 있는 벼룩을 잡을 수 있을 만큼의 유황

한 철학자는 이 내용을 가지고 인간의 가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주장을 펼쳤습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이 인간의 가치를 평가하는 전부는 될 수 없지요. 인간 안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영광과 생기가 인간을 특별하고 존귀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같은 성분으로 만들어진 인간이지만, 어떤 사람은 남에게 해를 끼치는 일만 하다가 죽고, 어떤 사람은 귀하게 하나님과 세상을 위해 쓰임 받으며 영생합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존귀함을 추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두 가지 기준이 있다고 했습니다. 첫째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며 사는 것”이고(마 6:33), 둘째는 “사람이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입니다(마 4:4). 이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인생의 존귀한 가치와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지요. 솔로몬은 “청년이여 네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네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네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고 지엄하게 경고합니다(잠 11:9). 또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라고 권면합니다(잠 12:13).

바벨론 포로시기 인권이 유린 되고 목살 되는 노예의 삶을 살던 시편 기자는 청년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시 119:9)

구역예배 • 가정예배 (구역예배가 어려운 성도님들은 가정예배로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순	서	예배 진행	인도자	BC	오늘 본문의 연표	Bible
사도	신경	다 같이	1107	제사장 엘리	삼상 1~4장
찬송	가 찬 435장	다 같이	1069	사사 삼손	삿 13-16장
대표	기도	말은 이	1067	마지막 사사 사무엘	삼상 1~8장
성경	봉독 왕상 12: 12~24	말은 이	1043	사울의 통치 (~BC 1011)	삼상 10~31장
말씀	인도 하나님의 섭리	말은 이	1011	다윗의 통치 (~BC 971)	삼하2-왕상2
합심	기도	다 같이	971	솔로몬의 통치(~BC 931)	왕상 1~11장
헌금	기도 찬 350장	말은 이	931	복조 1대 왕 여로보암(BC 913)	왕상 11장
주기도문	다 같이	931	남유다 북이스라엘 분열	왕상 12장

■ 들어가는 말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나뉘는 역사의 한 장면을 다루고 있습니다. 여기서 언급된 남쪽 유다는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의 연합체이고, 나머지는 북쪽 이스라엘 열 지파의 연합체입니다. 이스라엘은 본래 열두 지파 연합체였습니다. 그러나 사울과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만 열두 지파가 하나의 왕국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사울 시대는 하나의 왕국이긴 했지만 왕정이 아직 확고히 세워지지 못한 지방 분권 시대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 사울이 죽고 다윗이 헤브론의 왕이 되고,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죽으면서 이스라엘은 하나로 통일됩니다. 다윗이 세운 강력한 왕정국가로서의 이스라엘 공동체는 솔로몬 시대까지 이어오게 되지만, 지방 분권의 요구와 유다와 이스라엘 사이에는 깊은 갈등이 내재되어 있었습니다.

백성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은 르호보암에게서 백성들은 마음을 돌리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분열된 이유가 솔로몬의 범죄 때문에 야기된 결과라고 지적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성경의 역사적 해석은 항상 하나님 중심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를 시작하시고, 만들어 가시고, 마무리 지으신다는 뜻입니다. 동시에 성경은 끊임없이 인간의 역할과 책임을 묻습니다. 역사를 어떤 시각에서 바라보고 참여해야 할까요?

첫째, 하나님의 뜻과 백성들의 소리에 듣는 마음을 열어 두어야 합니다.

르호보암은 백성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라는 원로들의 조언을 거절합니다. 오히려 젊은이들의 어리석은 조언을 따라 포악한 말로 더욱 잔혹한 전제주의적 통치를 표방합니다. 백성들의 아우성을 외면하고 당장 듣기 좋은 젊은 친구들의 말을 앵무새처럼 반복하는 것을 보면, 르호보암에게는 역사의식은 물론 통치철학도 없고, 저의와 공의에 기초한 겸손한 통치 의지도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솔로몬의 죄와 허물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그렇다고 백성들의 소리를 외면한 책임을 면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허용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되, 인간의 과오와 어리석음을 인정하고 직시해야 합니다. 이 땅의 정치, 종교 지도자들에게도 하늘과 백성의 소리를 듣는 귀와 겸손한 마음과 선한 분별력을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둘째, 영적 분별력과 신실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합니다.

왕이 자신들의 요청을 듣지 않자, 백성들의 마음은 급격히 돌변합니다. 르호보암이 다윗 왕과 북쪽 이스라엘 간에 맺은 헤브론의 약속(삼하 5:1~3)을 어긴 것을 확인한 북쪽 지파들은, 다윗과의 관계를 부정하면서 남쪽 유다 지파와의 관계 단절을 선언합니다(삼하 20:1). 르호보암은 남쪽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만의 왕으로 전략하게 되고, 북쪽 이스라엘은 솔로몬의 신하였던 여로보암을 왕으로 추대합니다.

르호보암은 북쪽 지파에 강제노역을 감독할 책임자로 아도람을 파견하지만, 북쪽 이스라엘은 아도람을 돌려 쳐 죽이고 맙니다. 이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게 된 르호보암은 도망치듯 남 유다 성읍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르호보암은 북쪽 지파들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르호보암에게 등을 돌리셨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이웃의 아픔에 둔감할 만큼의 부요와 명예의 자리는 축복이 아닙니다. 이웃의 신음에 담긴 하나님의 신음과 진노까지 읽어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북쪽 이스라엘의 분노와 좌절은 이해할 수 있지만, 하나님까지도 버리는 듯한 태도는 옳지 못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영적인 분별력과 신실한 믿음으로 올바른 선택을 해야 합니다.

셋째, 하나님의 뜻에 순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대로 이스라엘을 둘로 나누십니다. 아도람이 죽자 놀란 르호보암이 18만 명의 용사들로 무장하고 북쪽 이스라엘을 제압하려고 되돌리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스마야를 보내 이를 막으십니다. 하나님의 극적인 개입으로 남 유다와 북 이스라엘은 공멸을 면하게 됩니다.

르호보암이 지금 의지해야 할 것은 권력과 군사가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꺾어 버려야 할 대상은 북쪽 이스라엘이 아니라 자신의 교만과 오만함입니다. 되돌려야 할 것은 쪼개진 나라가 아니라 우상으로 물들어간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는 것이 생명을 담보하는 길입니다. 혈기를 앞세우지 말고, 성령의 인도하심 안에서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 결론

우리는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허용하시며, 개입하신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다 알 수도 없고, 예측할 수도 없으며, 이해하거나 판단할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겸손과 순종, 신실함과 성실함, 사랑과 섬김의 삶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르호보암과 백성들의 행동은 이 기준에 비추어 판단해야 하며, 그들의 모습을 거울 삼아 우리의 삶도 하나님 앞에서 겸허히 점검받아야 합니다.